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결과요지

---

2019. 9. 27.

운영지원단

---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개요 ◆

1. 일시 : 2019. 9. 26. 11:20~18:00

2. 장소 :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한일(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4. 배석자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김영훈, 박노수, 강지웅, 유제민, 배진호(이상 운영지원단원)

5. 의사개요

가. 의장 직무대행 및 간사 소개

○ 의장, 이광만 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간사로 각 지명하였음을 공지함

나.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정 및 출범 경과에 관한 보고

○ 간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정 및 출범 경과를 간략히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윤준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3조 제2항 제1, 2호는 법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는 법관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위원 추천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상세하게 공개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 (답변) 전국법원장회의에서의 추천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음. 천거를 수락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의 구성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위원 2명을 선정하였는데, 후보자 중에는 법원장뿐만 아니라 심급과 경력을 고려하여 천거된 다른 법관들도 있었음

#### 다. 운영세칙(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확정

- 의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운영세칙(안)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음
- 운영세칙(안) 제2조를 수정하여, 간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위원의 사전 의견제시권을 명시하였음
- 운영세칙(안)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 라. 서기 임명

- 의장, 기획조정실 고원혁 사무관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서현웅 사무관을 서기로 임명함



#### 마. 법원행정처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

- 기획조정실장(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실국별 업무 및 현안을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견) 법원행정처의 법관 및 일반직 구성, 성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더 알려주었으면 좋겠음
  -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12:30경 오찬 관계로 정회

※ 14:20경 속개

#### 바. 운영지원단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

- 간사, 운영지원단 구성(안)을 보고함
- 의장,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지원단 구성(안)을 원안대로 확정함

#### 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논의

-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일시 퇴장

##### 1)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보고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함

##### 2)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안건에 관한 논의

- 의장,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아래의 6개 안건을 부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함
  -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현재 파견 연구관 선발
  -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보임

- 위원들은 부의안건의 범위, 부의 방식, 향후 일정, 비법관 위원 배제 범위(구체적인 인사안 보고시 불참)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의장이 제안한 내용에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함

### 3) 기타 논의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고등법원의 비대화(과밀화)에 관한 논의 제안
  - (의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간 인적자원 배분 불균형 해소 필요함
  - (답변) 정확한 통계자료 확인 후 해당 내용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전달하여 2020년 법관 정기인사에 참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위원들 모두 동의함
- 김진석 위원: 고법판사의 고법부장 보임 여부 논의 제안
  - (의견)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판사의 고법부장 보임 또는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 여부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논의안건으로 회부하기를 바람
  - (답변) 법관인사 일정상 회부 어려움. 최대한 의견수렴하여 대법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이찬희 위원: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논의 제안
  - (의견)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후 사건 적체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재 시행중인 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법원과 함께 더욱 개선하여 객관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답변) 법원에 대한 외부평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함. 우선 다음 회의 때까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이 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겠음

#### 아.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

- 의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재정시설분과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예산요구안, 결산안, 조직변경안 및 정원배정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법원 신설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여부, ③ 법원설계지침 변경, ④ 전용차량 등 배정기준, ⑤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
- **재판제도분과위원회:**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③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④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
- **사법정책분과위원회:**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③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
- 의장,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12월에 있을 제2차 회의



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

#### 자. 상고제도 개편 관련 논의

##### 1) 기초보고

- 유제민 사법지원심의관, 상고제도 개편 논의 안건에 관하여 보고함

##### 2)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하지만, 본 회의에서 먼저 상고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특별위원회의 임무 등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그 동안 각 개편(안)에 대한 장단점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이를 넘어서 영향분석도 포함되었으면 하고, 실현가능성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까지 포함된 충실한 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기존 개편(안)도 좋지만 새로운 안도 만들어졌으면 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하되 3가지 안 정도로 압축해서 장단점 및 영향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면 함
- 현재 제시된 개편(안)들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타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각 개편(안)에 대한 장단점은 충분히 검토되었고 또 알려져 있으므로, 취사선택을 하여 타협안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시점임. 이 논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서부터 여론 형성, 논의 종료 후 입법화 여부, 예산 반영, 실제 시행 후 보완 문제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함. 법원은 물론 저명한 학자들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원이 되어 합리적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각자 안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각 기관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함. 특별위원회에 법무부, 학계, 언론, 필요하면 기획재정부까지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상고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본 회의에서 논의 후 가능성 없는 안은 배제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압축하거나 새로운 안을 만들어 분과위원회에 회부한 후 결론을 내리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함
-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본 회의의 논의와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음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의장은 분과 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운영방안 논의**

- 강지웅 기획조정심의관,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운영방안을 보고함
- 자문회의는 논의 후 원안대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 **카.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방식 논의**

- 자문회의는 향후 운영 일정·방식을 논의한 후, 분기별 정기회의를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회의(임시회의)는



---

2020. 1. 2.(목) 15:00에 개최하되, 법관 위원만 참여하여 구체적인 인  
사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타.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19. 12. 12.(목) 10:00
- 장소: 대법원

**파.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자문회의는 제1차 회의 회의록 작성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처리할 부분  
은 없다고 의결함 <끝>